Good News Medical Volunteers

의사를 **한번** 만나보는 것,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

Good News Medical Volunteers Save People's Lives

아프리카 오지까지 기쁜소식을 전해주는 의료봉사단

굿뉴스의료봉사회 (Good News Medical Volunteers: GNMV)는
지구촌 곳곳에서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결성된 인도적 봉사단체입니다. 봉사 단원들은 미지의 대륙에 대한
도전 정신과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연합합니다.

CONTENTS

03 사 명
04 인 사 말
05 격 려 사
07 연 혁
09 행사소개
16 체 험 담
17 감 사 장
18 후원안내
19 지부현황

GNMV 설립목적

의료소외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
의료봉사를 통해 세계인들과 마음의 교류
생명사랑 실천 운동의 확산

GNMV 지향목표

의료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대한 실질적 지원
건강교육과 현지의료 전문인 양성을 위한 후원
인도적 차원의 국제적 구호사업으로 국위선양

Good News Medical
Volunteers

굿뉴스의료봉사회는 질병뿐 아니라
고통에 빠진 영혼과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과 같은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를 한 번 만나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2008년 여름 아프리카 가나와 케냐에서 7명의 한국인 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굿뉴스의료봉사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해 뒤 2009년에는 105명의 의료봉사팀으로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약 1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진료하였고, 2010년 여름에는 의료봉사팀의 규모가 더 커져서 256명이 약 2만 2천여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 6개국 그리고 지진 재난 지역인 아이티, 도미니카에서 352명의 봉사단원이 약 3만여 명의 현지인들을 진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더 많은 나라들, 중남미지역,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 어느 곳 이든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나가 도움을 줄 수 있을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는 다만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악과 마음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그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봉사단"

이러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기에 함께 하는 굿뉴스의료봉사회 참가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커지고 삶이 크게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굿뉴스의료봉사회가 펼쳐 가는 활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는 굿뉴스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에 함께 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 회장 전 홍 준

✚ 격려사

아프리카 대륙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대한민국을 대표해 머나먼 길 아프리카로 떠나시는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료가 선진화 되어 어려운 병도 척척 고쳐내는 나라가 있는 반면, 조그마한 상처에도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 2차 감염이 되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청소년연합의 굿뉴스의료봉사단 아프리카 의료봉사로 인해 내전과 기근으로 질병이 만연한 아프리카 대륙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땅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몸만 고쳐주는 진료' 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적 고통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진료' 가 됐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더불어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와 안위도 잘 관리하면서 활동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선사하는 고귀한 일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질병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따뜻한 인술을 베풀고 있는 굿뉴스의료봉사회 여러분들의 활약상과 나눔의 현장을 담은 홍보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굿뉴스의료봉사회는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 등 지구촌 곳곳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저개발국의 보건의료 증진에 힘써 오신 굿뉴스의료봉사회 모든 단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의료봉사활동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선사하는 고귀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한의계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한의약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굿뉴스의료봉사회 홍보책자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언제나 지구촌 인류 건강 증진에 힘쓰고 계신 굿뉴스의료봉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

굿뉴스의료봉사단이 걸어온 희망의 길

세계 오지 사람들의 질병 치료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고 맡겼던 그들이 올해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연혁

2008 아프리카
2008. 8. 11 ~ 22 (12일간)
가나, 케냐
참가규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17명으로 구성
진료인원 1,000여 명 진료

2009 아프리카
2009. 8. 10 ~ 28 (19일간)
가나, 토고,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5개국
참가규모 의료인과 자원 봉사자 105명으로 구성
진료인원 10,000여 명 진료

2010 아프리카
2010. 7. 17 ~ 31, 8. 7 ~ 22 (30일간)
가나, 토고, 베냉, 케냐, 말라위 5개국
참가규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56명으로 구성
진료인원 22,000여 명 진료

2011 상반기 도미니카
2011. 4. 17 ~ 20 (4일간)
도미니카 산티아고
참가규모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 10명
진료인원 1,800여 명 진료

2011 상반기 아이티
2011. 4. 12 ~ 20 (5일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참가규모 의료진과 현지 자원봉사자 50명
진료인원 5,600여 명 진료

2011 아프리카
2011. 7. 23 ~ 8. 17 (26일간)
가나, 토고, 코트디브아르, 케냐, 말라위, 탄자니아 6개국
참가규모 의료진과 현지의료진, 자원봉사자, 현지 의과대학생, 태국의사 등 280명
진료인원 21,700여 명 진료

2011 하반기 도미니카
2011. 9. 3 ~ 10 (3일간)
도미니카 산티아고
참가규모 의료진과 현지 자원봉사자 50명
진료인원 600여 명 진료

2011 하반기 아이티
2011. 8. 31 ~ 9. 7 (4일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참가규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7명
진료인원 2,800여 명 진료

+ 행사소개

지역별 참가자 및 후원자 초청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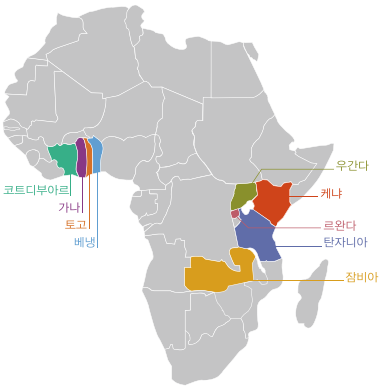
각 지역별 의료봉사지원자와 후원자를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굿뉴스의료봉사회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지난해 굿뉴스의료봉사단에 참가했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체험담을 통해 아프리카 사람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가난, 지진피해로 고통 받는 아이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고 기쁨을 얻어 돌아온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향후 계획과 의료봉사단 모집 및 후원자 모집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별 팀장과의 만남을 통해 형식적인 모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이다.

오리엔테이션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별로 확정된 의료봉사단 참가자들이 모여 지난해 그 지역에 참가했던 봉사단원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으며 의료봉사 할 국가에 대한 지역 환경과 의료 환경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팀 별 모임에서는 각국 팀장의 인도로 봉사자로 갖추어야 할 마음자세와 현지에서 실제 필요한 물품이나 의약품 등을 결정하며 앞으로 참가할 국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교환하는 시간이다.

귀국 친선의 밤

귀국 친선의 밤 행사는 해마다 아프리카, 아이티, 도미니카 등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의료진과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곳에서 느낀 기쁨과 보람을 공유하고 친목도모를 통해 다음해의 의료봉사활동을 계획한다.



아프리카 의료봉사

2008년 여름 아프리카 가나와 케냐에서 7명의 한국인 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105명의 의료봉사팀으로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2011년에는 가나, 토고, 코트디부아르, 케냐, 말라위, 탄자니아 6개국에서 약 2만 2천여 명의 현지인들을 진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매년 여름 서부, 동부 아프리카 전역으로 과목별 의료진과 일반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하여 수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올해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파견기간 매년 7월 중순 ~ 8월 중순

가나 GHANA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나 북부지역은 최근에 에너지 위기와 장마와 홍수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악화되었다. 시골 지역주민의 3분의 1은 안전한 물을 마시기 어렵다. 인구의 11%만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안전하지 못한 물을 마심으로 인해 기니 벌레, 기생충 감염건수가 계속되고 있다. 에이즈 발병건수의 30%만이 보고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총인구	23,478,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72%
5세 미만 사망률	115 (명/천명)	5학년 진학률	60%
저 체중 신생아 비율	9%	1인당 GNI	59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80%	AIDS	160,000(명)

토고 TOGO

38년 동안 재직했던 토고의 국가 원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된 권력 투쟁은 35,000명의 난민을 만들었으며, 이재민도 10,000명이 되었다. 경제제재와 개발원조의 감소는 보건과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점차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 에이즈 환자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기 쉬우며, 젊은 사람들은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총인구	6,585,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80%
5세 미만 사망률	100 (명/천명)	5학년 진학률	68%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2%	1인당 GNI	36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59%	AIDS	68,000(명)

코트디부아르 COTE D' IVOIRE

아프리카 대륙 서쪽, 대서양을 끼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이다. 국민보건과 위생 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15세 미만이다. 출생률과 사망률은 세계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말라리아, 이질, 결핵, 성병 등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총인구	19,262,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62%
5세 미만 사망률	127 (명/천명)	5학년 진학률	86%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7%	1인당 GNI	91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81%	AIDS	420,000 (명)

베냉 BENIN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안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여성의 문맹률 등이 높으며 빈곤, 문맹, 질병 등은 어린이 권리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어린이는 노동, 인신매매, 성학대로 고통을 당하며. 도시지역에서는 팔려 온 여자어린이(vidomegon), 어린이 거지(talibes)의 경우 성착취와 에이즈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

총인구	9,033,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67%
5세 미만 사망률	123 (명/천명)	5학년 진학률	65%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5%	1인당 GNI	57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65%	AIDS	29,000 (명)

케냐 KENYA

아프리카 동부해안에 위치하고 인구 3,400만 명 중 14% 이상이 HIV 감염자이다. 또한 전 인구의 60%가 16세 미만의 어린이다. 그 이유는 매년 2~300만 명의 어른들이 AIDS와 말라리아로 죽고, 최근 몇 년간 영아와 어린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DS사망으로 인해 약 50만 명의 고아들이 있다.

총인구	37,538,000(명)	초등학교 취학률	76%
5세 미만 사망률	121 (명/천명)	5학년 진학률	84%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0%	1인당 GNI	809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57%	AIDS	1,100,000 (명)

르완다 RWANDA

1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다.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말라리아, 설사병, 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의 4분의 1 가량이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으며,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의 40%가 영양실조에서 기인한다. 성인(15~49세)의 에이즈 감염자 중 25만여 명이 적절한 치료(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인구	9,725,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86%
5세 미만 사망률	181 (명/천명)	5학년 진학률	31%
저 체중 신생아 비율	6%	1인당 GNI	32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65%	AIDS	220,000 (명)

잠비아 ZAMBIA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인구의 64%가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성인의 16%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이며 에이즈로 인해 한 세대의 상당수가 고아가 되었다. 5세 미만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빈혈, 비타민A 결핍증은 많은 어린이가 겪고 있는 질병이다. 보건시스템은 약품, 의료장비, 훈련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촌지역은 정도가 더 심하다.

총인구	11,922,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57%
5세 미만 사망률	170 (명/천명)	5학년 진학률	76%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2%	1인당 GNI	80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58%	AIDS	600,000 (명)

우간다 UGANDA

매년 2만 명의 아기들이 엄마로부터 에이즈 감염되고 있으며 2백만 명의 고아 중, 절반 가량이 에이즈로 인해 부모를 잃었다. 분쟁으로 이재민이 된 140만 명 중, 80% 가량이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들은 200여 개 이재민캠프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말라리아, 호흡기증후군, 설사 등의 질병들이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총인구	30,884,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82%
5세 미만 사망률	128 (명/천명)	5학년 진학률	25%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4%	1인당 GNI	34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64%	AIDS	1,200,000 (명)

탄자니아 TANZANIA

탄자니아는 르완다,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등 이웃나라들의 분쟁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에이즈 확산율은 9%,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이가 백만명에 이르며 고아가 아니더라도 병든 부모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어린이 사망의 주된 원인은 말라리아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에이즈 확산을 억제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총인구	40,454,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73%
5세 미만 사망률	116 (명/천명)	5학년 진학률	83%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0%	1인당 GNI	40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55%	AIDS	970,000 (명)

중남미 의료봉사

2011년 4월 아이티 정부의 요청에 의해 2010년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아이티, 도미니카로 처음 의료봉사단이 참가하여 7,5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재방문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이티 사람들의 질병도 치료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의료진들은 희망을 주고 돌아왔다. 중남미 사람들은 올해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파견기간 매년 9월

아이티 HAITI

2010년 갑작스런 강진으로 인해 24만 명이 사망, 실종되었으나 발굴 된 사체는 9만 명에 불과 하며 아직도 파괴지역이 복구 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어 콜레라, 급성폐렴, 피부질환 등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국제적인 구호단체도 다 떠나 버려 의료 공백 상태에 처해 있는 아이티. 사고 순간 간단한 처방만으로도 곧 회복 가능했을 상처였지만 진료를 못 받아 결국 불구가 된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다.

총인구	9,000,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85%
5세 미만 사망률	60 (명/천명)	5학년 진학률	60%
저 체중 신생아 비율	9%	1인당 GNI	59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80%	AIDS	160,000 (명)

도미니카 DOMINICA

카브리해 이스파니올라섬의 동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도미니카의 보건조사 결과 총 인구의 2.2%가 에이즈 보균자로 추정되고, 그 중 5,120명은 5세 미만 어린이이다. 에이즈로 인한 누계 사망자 수는 34,050명에 이르며 에이즈는 주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총인구	9,510,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76%
5세 미만 사망률	121 (명/천명)	5학년 진학률	84%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0%	1인당 GNI	6800 (불)
안전한 식수 보급률	57%	AIDS 고아	1,100,000 (명)

✚ 현장 체험 인터뷰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여름을 보낸 사람들…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

유방 한쪽이 썩어 가고 있던 18세 처녀. 염증 초기에 항생제로 치료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래도록 그냥 두어 썩어 가고 있었다. 썩은 부위를 긁어내고 치료하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1주일, 2주일 굶은 사람에게 밥 한 끼는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된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4박 5일의 봉사 기간은 투자 비용에 비해 짧기만 하지만, 혜택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된다. 아주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

문창원 가정의학 전문의 (코트디부아르 참가)

"God bless you"

제일 인상 깊었던 환자는 60대 남자 분 이었는데 목 뒤에 혹을 달고 있었다. 지방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병원에서 흔히 하는 수술이다. 간단하게 제거 할 수 있는데 제거를 해드렸더니 고맙다면서 "God bless you" 라고 말했다. 내가 태어나서 들어본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였다.

채병도 외과 전문의 (케냐 참가)

나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

폐렴에 걸린 2개월된 상태가 좋지 않은 아기의 주사를 놓는데 혈관을 찾기가 어려워 10번을 넘는 시도 끝에 아기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기는 상태가 아주 호전되어 똘망 똘망한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주사가 쉽게 놓아지지 않아 원망하던 엄마가 아기를 나에게 안겨주며 감사하다고 했다. 나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한 이 아기를 만나러 올해도 다시 아이티에 갈 것이다.

박진영 응급구조사 (아이티 참가)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희망

지금까지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믿고 살았던 분이 계셨다. 그런데 검사 결과 에이즈가 아니었다. 그동안 얼마나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단 한 번의 검사로 건강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덩달아 기뻤다. 우리가 가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다. 김소은 산부인과 전문의 (토고 참가)

약을 꾸준히 먹기만 하면 낫는데…

뼈만 앙상했던 17세 아이는 체중감소, 오한, 기침, 객혈 증상이 심각했다. 증세로 봐서 결핵이 틀림없었다. 결핵약을 꾸준히 먹기만 하면 낫는데, 집이 가난해 그건 불가능하단다. 결핵약을 챙겨가지 않은 것이 너무 미안했다. 한국에 가서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한국이라면 금방 처치 할 수 있는 환자들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생명을 잃기도 한다.

김재권 내과 전문의 (가나 참가)

내가 누렸던 것들을 그들에게…

살인적인 스케줄과 무더운 날씨… 밀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예전에 나일까? 하며 놀랐다. 하루 하루 살기 벅찬 그 사람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길고 긴 줄을 서서 한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비로소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다. 올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의료봉사에도 꼭 참여하여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정지영 치과의사 (도미니카 참가)

+ 감사장

봉사국가에서
의료봉사단에게 보내 온 감사장

Ayuntamiento del Municipio de Santiago

도미니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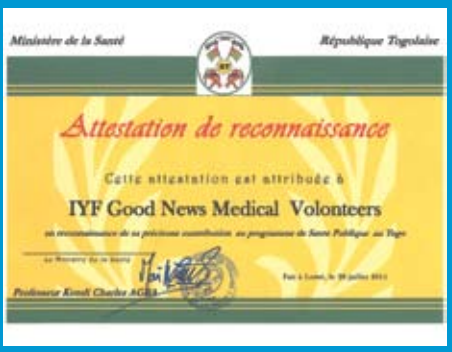
DIPLOME D'HONNEUR

Décerné à

KO KYONGSOOK

pour sa brillante participation à la Caravane de soins médicaux gratuits en Côte d'Ivoire du 1er au 04 Août lors du Camp Mondial IYF 2011 de la Réconciliation.

코트디부아르 (보건복지부)


Ministère de la Sant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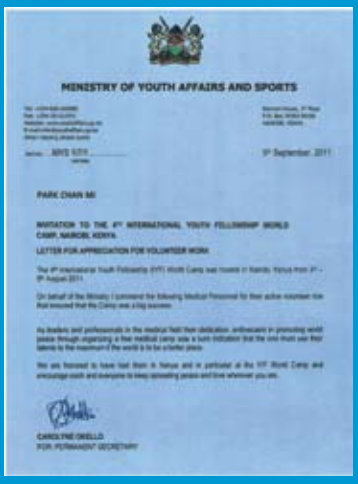
République Togolaise

Attestation de reconnaissance

Cette attestation est attribuée à

IYF Good News Medical Volonteers

토고 (보건복지부)


MINISTRY OF YOUTH AFFAIRS AND SPORTS

케냐 (체육청소년부)

이제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T) 070-7538-5201 F) 02-579-0318
홈페이지 www.gnmv.org ※ 회원가입을 하시면 누구든지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101-04-049805 국제청소년연합 (의료봉사단)

후원자가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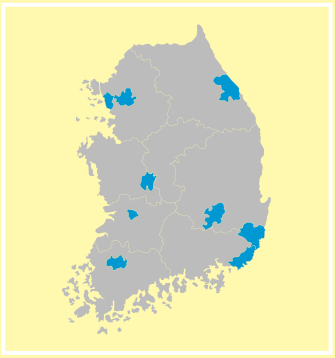
· 해외 의료봉사 활동 우선 선발 혜택
· 의료봉사회 모든 행사 참여 혜택
·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종류	후원내용
개인후원	일시 후원회원 : 후원자 임의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후원 정기 후원회원 : 월 1구좌 (2천원)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
특별후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을 통한 후원
물품후원	의료기기와 의료장비 및 간호용품 등
약품후원	의약품 일체 (기증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약품)
기업후원	의료봉사 진행물품, 약품,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 후원금 등으로 GNMV를 후원하는 기업
엽서후원	후원엽서 작성 ▶신청접수 ▶ 개별연락 및 상담 ▶ 물품발송 또는 수거, 입금확인 ▶ 후원완료

국내 및 해외지부

국내지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83번지	TEL 070-7538-5201, FAX 02-579-03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7	TEL 032-326-9229, FAX 032-326-9339
강원도 강릉시 교2동 622	TEL 033-648-6621, FAX 033-641-7812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16-16	TEL 042-527-6655, FAX 042-532-682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1-1	TEL 063-242-4828, FAX 063-244-4828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99	TEL 062-655-7200, FAX 062-655-7203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287-2	TEL 053-525-6130, FAX 053-525-613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730	TEL 051-627-0852, FAX 051-624-1092
울산시 을주군 언양읍 반송리 653-1	TEL 052-276-7080, FAX 052-261-3465
경남 마산시 현동 1344	TEL 055-251-9199, FAX 055-292-6891



해외지부

아프리카(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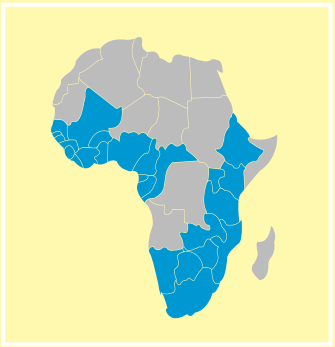
콩 고 브라자빌
가 봉 리브르빌
가 나 테마, 아크라 레곤, 아크라, 아크라 쏘우티움
베 냉 코토노
토 고 로메
나이지리아 라고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세 네 갈 다카르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감 비 아 세레쿤다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말 리 바마코
기 니 코나크리
카 메 룬 야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

아프리카(동부)

케 냐 나이로비
르 완 다 키갈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테지
우 간 다 캄팔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남 아 공 요하네스버그, 더반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잠 비 아 루사카
말 라 위 릴롱궤
모잠비크 마푸토
부 룬 디 부줌부라
짐바브웨 하라레
나미비아 빈투후크
보츠와나 가보로네

중남미

도미니카, 아이티



Good News Medical
Volunteers

굿뉴스의료봉사회 본부
www.gnmv.org 서울 서초구 양재동 183번지 TEL 070-7538-5201, FAX 02-579-0318